



만나다

KAPE, 축산 명인을 만나다



# 우리 한우의 자부심! 관심법으로 키운 한우의 내일

탁 트인 언덕, 따스한 햇볕, 푸른 하늘과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곳은 <천우축산>이다. 고향인 이곳, 곡성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었던 박희애(55), 임차택(58) 대표는 광주에서 전기기술자로 근무하다가 2005년에 겸업으로 축산을 시작했다. 두 대표에게 축산 비결을 묻자 그저 남들하고 똑같이 키운다고 대답한다. 그럴 리 없다. 한우 축산 명인의 일상에서 그 노하우를 살펴보자.



06:00

## 하루 5번, 소식으로 지키는 건강

<천우축산>은 적은 양의 사료를 하루 다섯 번씩 나눠 먹인다. 소를 먹이기는 인이 가장 중요한 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에 게을러질 수 없다. 오랜 연구 끝에 비육 축사에 5번, 번식 축사에 2번 밥을 주고 있다. 그 결과 얻은 것은 한우들의 건강이요, 잃은



천우축산 대표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 박희애 / 임차택



것은 시간이다. 온종일 소들의 밥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지만, 예쁘고 건강하게만 자라면 그만이라는 두 대표! 자연스럽게 소들을 더 많이 관찰하고 자주 보는 얼굴이기에 아픈 것도 금세 알아낸다. 성실함으로 소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소는 누우로 키우네!” 말처럼 얼마나 많이 관찰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많이 좌우됩니다. 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그저 관심으로 키우는 것이죠.”



홍아름  
사진  
이동훈



12:00

이들에 한 번, 소독은 필수

〈전우축산〉에서는 이들에 한 번씩 축사를 소독한다. 송이씨에게 질병이 오지 않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소독에 각별한 신경을 쓰게 된 것은 소독으로 큰 피해를 막은 기억이 있어서다. 2008년, 〈전우축산〉은 다른 축사와 밀접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당시, 부르셀라병이 전국 축사에 퍼져있을 때라 축사에 병이 옮을까봐 열심히 소독했다. 그러던 도중 밭에 있던 축사에 부르셀라병이 퍼져 전 누수를 매몰 처리하게 됐다. 가까운 죽시에 병이 퍼져 마옵고생하던 중 〈전우축산〉에 부르셀라병이 옮았다. 9개역 방 중 5번 방에 있던 한우에게 발기된 것이다. 병이 발기되지마자 이들에 한 번 소독했다. “겨울이라 소독 장비가 없어서 매번 장비를 녹여가며 소독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5번 방을 제외한 나머지 수들에게는 옮기지 않아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한우육종농가가 되면서 더욱 소독에 신경 쓰게 되었다. 몸은 고되지만 수들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크다.



16:00

한우육종농가의 자부심을 걸고

올해로 13년 차. 이씨는 한우를 키우는 일이 편해졌을 만도 한데 여전히 기상을 늦추지 않는다. 끊임없이 소들을 주시하며 건강을 살핀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전우축산〉은 2013년 한우육종농가로 선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큰 상을 받아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처음에는 그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배운 것을 꾸준히 실천하고 연구하면서 어린이가 똑보듯 한눈팔지 않고 지켜본 관심의 결과가 드러난 것이다. 지금은 아들을 후계자로 양성해 노후를 전수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 키우는 〈전우축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한우육종농가로서 슈퍼한우 씨수소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250~300두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전우축산〉을 완성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천 전(千)에 소(牛) 전 마리의 소를 뜻하는 〈전우축산〉은 그 이름만큼이나 원대한 목표를 향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수많은 한우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 한우의 자부심이 되기를 바리본다. ☺